

## ● 9월 속회: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 1. 환영과 인사: 속장

### 2. 찬송: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새 315/통 512)

### 3. 시작 기도: 속장 또는 속원

### 4. 감사의 고백과 나눔: 속원들이 돌아가면서 지난 한달 동안 감사했던 내용이나 감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대해 나눕니다.

### 5. 성경읽기: 마가복음 7:1-13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해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닢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 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 6. 본문의 내용

본문은 유대교의 정결법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모세 율법 외에도 손 씻기, 그릇 씻기 등 일상생활의 정결 규례를 세세하게 규정하는 “장로들의 전통”(구전된 율법)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형식적 전통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따르는 것의 충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의로움을 보이려 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이러한 외적인 행위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내면의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외식)을 구체적인 예시로 비판하십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뜻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드려야 할 재정적인 도움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해 버리면, 부모를 돕지 않고도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전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전통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을 무효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십니다.

본문은 사람이 만든 종교적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오히려 어기게 만드는 모순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행위나 규율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진정한 마음의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함을 강조하십니다.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에만 치우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비판하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 7. 나눔

- 1) 오늘날 개인의 삶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더욱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장로들의 전통(종교적 전통, 사람이 만든 전통)”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2)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앙생활에서 말과 입술만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8. **합심기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속장 또는 속원이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 9. 주기도문: 다같이